

ZOOM IN BIBLE

그리스도인과 전쟁

WORLDVIEW SPECIAL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PEOPLE & PEOPLE

꿈을 이루는 사람들 DCTY_권성윤

CULTURE TREND

기독교 영화로 치유되는 세상 강진구
드라마, 은혜와 죄의 경계에 서다_추태화

11·12

VOL. 126

www.worldview.or.kr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view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ASSOCIATION OF CHRISTIAN WORLDVIEW STUDIES

SAMSUNG

Samsung
Anycall

볼 수 없던

세상이 보인다

잡을 수 없던

아름다움이 잡힌다

이뤄질 수 없던

일이 이루어진다

세상에 없던
스마트한 능력이 생겼다

GALAXY S



세상이 만만해진다

SUPER SMART



SUPER DESIGN

9.9mm에 아름답게 다 갖춘
슈퍼 디자인



SUPER AMOLED

아몰레드보다 더 밝고
선명한 4.0형 슈퍼 아몰레드



SUPER APP

깊이가 다른 S만의 생활친화형
슈퍼 어플리케이션

www.samsungmobile.com

worldview

NOVEMBER / DECEMBER 2010 VOL.126

발행인_손봉호

편집인_김승욱

편집_차명실

편집위원_ 강진구, 권성윤, 권오병, 김승태,
김원수, 김정일, 김중락, 박동열,
성백영, 이승구, 유정철, 유해신,
장갑덕, 최태연, 한윤식,

출판위원_김혜정, 오형국, 신현기

제작_한국학술정보

주소_140-909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대표전화_02-754-8004

팩스_0303-0272-4967

E-mail_(사무국)info@worldview.or.kr

(학회)jihakyun@daum.net

Homepage_www.worldview.or.kr

ZOOM IN BIBLE

04 그리스도인과 전쟁_손봉호

WORLDVIEW SPECIAL

10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_임성빈

14 '아가페 하우스'이야기_서성록

PEOPLE & PEOPLE

20 꿈을 이루는 사람들_권성윤

WORLDVIEW COLUM

24 VIEW를 통해 꿈꾸는 기독교 세계관적 목회_김정일

28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분과 모임_이종철

CULTURE TREND

30 기독교 영화로 치유되는 세상_강진구

32 드라마, 은혜와 죄의 경계에 서다_추태화

BOOK REVIEW

36 성경적 세계관으로 홈스쿨하기_강성환

MEDIA ACADEMY

40 레위기서의 부활을 꿈꾸다_이지현

43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 주세요?_박명호

WORLDVIEW NEWS

44 활동보고와 회원소식

46 회비 및 후원안내

온전한지성DEW가 WORLDVIEW로 제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 전쟁

가장 악한 만행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만행은 전쟁이다. 살인이 가장 극악한 죄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전쟁에 아무 책임도 없는 민간인들이 직접 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군인들보다 더 많이 죽고 다치며, 그들의 재산이 파괴되기 때문에 전쟁은 한 두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을 유린하고 정의를 파괴한다.

우리는 흔히 행위자의 동기에 따라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만 죄악이지 과실치사나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의도하지 않은 살상은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행위주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잘못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그의 고통이다. 고의적인 살인이나 실수 혹은 전쟁에서의 살인이나 피해자가 죽는다는 사실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전쟁에서 우연하게 죽었다 하여 고의적인 살인행위로 죽은 것보다 덜 억울하거나 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힘의 정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커졌고 그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해진 오늘날에는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며 기본 인권을 올바르게 존중하는 것이다. 현대의 윤리는 행위주체 중심적이지 아니라



피해자 중심적이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 가운데 전쟁만큼 큰 것은 없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약 7천만 명이 희생되었고 그 가운데 민간인이 약 4천만 명이었으며, 6.25전쟁에서는 군인은 약 40만 명이 목숨을 잃은 반면 민간인은 약 200만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상자는 그 보다 더 많았을 것이며 그들은 일생을 장애자로 고통을 겪으며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 재산 피해도 엄청나서 전 지역이 초토화되었다.

무기로 죽이고 상처를 주는 것 외에도 전쟁 중에는 평상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간, 납치, 협박, 모독 등의 인권유린이 이뤄지고 정의, 정직, 예의가 다 무력해져서 인간이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을 자행할 수 있으며 인간의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단면이 거침없이 적나라하게 표현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특히 기독교인은 모든 힘을 다 기울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전쟁을 논의할 때 반드시 그리고 우선적으로 전제해야 할 기본명제다.

의로운 전쟁 이론

전쟁이 좋지 않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 하는데 전쟁보다 더 나쁜 대안은 없다는 사실도 대부분 인정한다. 그런데도 불



구하고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전쟁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는”(사 2:4) 상황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역사상 많은 사상가들은 어떤 전쟁도 반대하는 평화주의(pacifism) 대신에 의로운 전쟁(just war) 이론을 제시하였다. 도덕적으로 양심에 가책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가장 유명한 이론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Cicero, 106-43 B.C.)가 제시한 것이다. 그는 (1) 전쟁에 참여할 유일한 정당성은 국가의 명예 혹은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2) 모든 협상이 다 실패했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며 (3) 상대에게 적절한 경고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4) 그 목적은 정복이나 세력의 확장이 아니라 정의로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야 하며, (5) 포로와 항복하는 모든 사람들은 보호되어야 하고, (6) 합법적인 군인만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칼빈, 루터 등 기독교 신학자들도 키케로의 주장과 비슷한 정당화 전쟁 이론을 제시했다.

2003년 4월 14일 복음주의협의회 월례발표회에서 투빙겐 대학교 신화학 교수 베이어하우스(Peter Bayerhaus) 교수는 루터교회의 중요한 교리 문서인 아우그스베르크(Ausberg)

신앙고백 16조항이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범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통치자들과 심판자들로서 무기를 사용하여 공의로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기술하고, 정당한 전쟁의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고 소개하였다. “(1) 전쟁의 불가피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법한 권위가 있어야 한다. (2) 분명한 전쟁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 즉 무기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분명한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큰 악을 제거하는 작은 악이 것이 되어야 한다. (3) 전쟁의 수단이 그 전쟁으로 극복하고 제거하려는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선한 목적에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4) 전쟁은 마지막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즉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에만 채택되어야 한다. (5) 전쟁은 예측할 수 있는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다는 계산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6) 그와 같은 전쟁의 결과는 전쟁을 초래케 한 재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의로운 전쟁에 관한 키케로와 베이어하우스 교수의 관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전쟁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위치다. 키케로가 중시한 것은 국가의 명예와 안전인 반면에 베이어하우스는 국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독교 전쟁 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소크라테스도 국가는 어머니와 같다고 주장하였고, “미우나 고우나 나의 조국”이란 생각은 오늘날에도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러므로 외국과 전쟁이 일어나면 조국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국가관을 수용할 수 없다. 국가란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상주는 역할, 즉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약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가질 뿐 그 자체로 신성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사실 애국심이란 거대한 집단이기주의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솔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불의한 전쟁을 수행할 때는 그리스도인과 양심적인 시민들은 그에 항거하고 반전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후에 독일 수상이 되어 독일 통일의 초석은 놓은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는 2차 대전 중 노르웨이에 망명하여 독일 시민권을 포기하고 독일의 패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조차도 잘못된 애국자가 되어 불의한 전쟁을 기독교 이름으로 지지하고 자국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고 기도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필리핀을 점령하기 위하여 스페인과 전쟁을 선포한 미국 대통령 맥킨리(McKinley)의 위선은 유명하다, 백악관을 방문한 목사들에게 “며칠 간 밤 늦게까지 백악관 마루를 서성이다 마침내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필리핀을 완전 점령하여 그들을 교육시키고 격상시키며 문명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의 동료 시민으로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뒤 나는 아주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선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 2008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이 한. 중. 일 청소년에게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앞장 서 싸우겠다”고 대답한 학생이 일본 41.1%, 중국 14.4%였는데 한국은 10.2%에 불과했고, “외국으로 나가겠다” 는 대답은 일본 1.7%, 중국

2.3%, 한국 10.4%였다 한다 (2008년 4월 10일 조선일보). 나조차도 이를 개탄했는데, 정말 개탄해야 할 사실인지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평화주의와 이웃에 대한 책임

앞에서 제시된 의로운 전쟁 조건들에 대해서는 그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다.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적법한 권위”란 것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히틀러도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았으므로 적법한 권위라 할 수 있고 6.25을 일으킨 북한의 김일성 정권도 그 나름대로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전쟁 후의 상태가 전쟁의 원인이 되는 악을 충분히 보상할 때만 정당하다는 것도 이론적일 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결과가 가져올 이익이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나 전쟁 과정이 일으킬 해악보다 적다고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작되는 전쟁은 없다. 전쟁이란 너무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예측이나 계산도 정확할 수 없다. 대부분의 전쟁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해악을 가져온다.

오늘날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참여하는 정당성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구실은 그 전쟁이 “방어적”이란 것이다. 사실 그런 구실은 거의 모든 전쟁에서 이용되어 왔다. 1967년 이스라엘 비행기가 이집트 비행장을 폭격함으로써 시작된 ‘6일 전쟁’도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의 예상되는 공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일으킨 방어적인 공격 (preemptive strike)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진정 방어적인 전쟁은 정당하다 해야 할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악한 세력의 공격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방어적인 전쟁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항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의를 당하고 참는 것이 옳다. 소송과 관계해서 바울 사도는 (고전 6:7)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

국가란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상주는 역할, 즉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약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가질 뿐 그 자체로 신성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사실 애국심이란 거대한 집단이기주의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솔직할 것이다.

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하고 가르쳤다. 예수님도 (마 5:39-41)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사실 전쟁이 가져올 수 있는 온갖 해악을 다 고려하면 불의한 세력에게 당하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의의 정도와 전쟁의 결과가 경우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판단을 어렵게 한다. 즉 불의의 정도와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그것에 굴하는 것만큼 클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작은 희생으로 불의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불의의 피해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가해진다는 사실이다. 전쟁의 피해가 나 자신에게만 국한된다면 나의 주장과 이익을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으나, 나의 희생이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 특히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죄한 이웃을 위하여 싸워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희생당할 만한 어떤 잘못도 없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확신 때문에 더 큰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나에게서 그런 희생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전투에 참여해야 할 상황에 있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개인적 원칙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면 우리 쪽의 힘은 그만큼 약해질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 쪽이 패전하면 나 뿐 아니라 다른 이웃도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6.25 한국 전쟁 때

평화주의자가 많아서 패
 했더라면 그
 평화주의자
 들 뿐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도 지금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겪
 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
 실이 원칙적인 평화주의(pacifism)
 를 매우 난처하게 만든다. 나는 개

적으로 평화주의자가 될 수 있으나 나의 확신 때문에 평화주의자가 아닌 이웃이 더 큰 고통을 당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민주화가 하나의 대안

전쟁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현실주의’,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는 ‘평화주의’, 전쟁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정의롭게 해야 한다는 ‘의로운 전쟁 이론’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전쟁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 전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으나 동시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원칙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 것도 시도하지 않고 손을 놓아버리기에는 그 악이 너무 심각하다.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어나더라도 가능한 한 정의롭게 수행하고 가능한 한 희생과 고통을 줄이며, 가능한 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의롭던 의롭지 않던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며 특히 그리스도인의 임무일 것이다. 이와 관계해서 흥미로운 것은 최근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정치학자들 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대변하는 정치학자 럼멜(J. Rummel)은 (*Death by Government*, 1994, *Power Kills: Democracy as a Method of Nonviolence*, 1997) 민주주의적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기 보다는 협상하고 타협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적 유산의 일부가 되어 있어서 다른 민주 사회와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비폭력적 방식으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강화하므로 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가의 권력 행사를 통제한다고 보았다. 럼멜의 다른 학자들도 민주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쟁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다.

물론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숙한 민주 국가 간에는 비민주 국가 간이나 민주국가와 비민주 국가 간 보다는 전쟁이 적게 일어난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메튜 화이트(Matthew White)에 의하면 민주주의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19.8%인데 비해서 두 비 민주주





의 국가 간 전쟁 확률은 30.8%,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 간의 전쟁 확률은 49.4%라 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오 오늘날, 미국과 독일, 프랑스와 영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대만 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으나, 남한과 북한, 일본과 북한, 일본과 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하면 할수록 한국과 전쟁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비록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비교적 현실적인 것은 우리 사회를 가능한 한 민주화하고 시민사회를 육성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되, 그것을 물리적 싸움과 폭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민주적 제도에 따라 협상과 타협으로 해결하는 시민사회를 만들면 국가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고, 시민들의 뜻에 반해서 전쟁을 선포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물론 우리만 민주화한다 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많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남북한 간의 전쟁이다. 그 동안 무기는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서로를 살상할 수도도록 개발되었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지난 6.25 전쟁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인명희생과 재물파손이 일어날 것이다. 적화통일 이외에는 전쟁보다 더 피해야 할 상황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감행해야 할 것이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 정권을 자극하여 전쟁 이외에 다른 통로가 없도록 밀어붙이는 정책은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여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모든 한국인, 특히 그리스도인의 지상 임무라 할 수 있다.

전쟁을 줄이는 하나의 대안이 민주화라면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민주화는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룩되었다.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한 것이 문제지만 이번 총리, 장관 내정자 청문회를 보면 그래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중요하고 시급

한 것은 북한의 개방과 민주화다. 그것은 단순히 남북 간의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고 그들의 삶이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북한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 한 북한이 개방되고 민주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념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까 한다.

문제는 북한의 민주화와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을 위협하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북한이 무릎을 꿇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시도했던 것과 같은 햇볕정책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이념에 따라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며 실사구시의 문제다.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토론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이지 감정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햇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전문가의 의견이란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기독교적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의 핵무기 제조와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반대하고 비판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굶주리지 않게 식량을 보내는 것은 전쟁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런 의견도 역시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민주화를 통하여 전쟁 가능성을 줄인다는 목적에 모두가 동의한다면, 그 방법의 차이 때문에 우리끼리 반목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본 원고는 2010년 9월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월례회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글.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지난 2010년 11월 27일 명지대학교 방목종합학술관에서 2010년 제27회 기독교학문학회가 있었습니다. 본 원고는 이번 학회의 주제발표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학회 발표 논문의 원문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사회발전이라는 개념은 가치 함축적인 개념으로 근대화 과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양식으로 전개되는 사회구조의 변동을 말한다. 본 소고의 관심은 한국사회의 현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회발전 전에 대한 기독교의 역할을 분석하여 보는 것이다. 한국 사회발전 전에 있어서의 교회공헌은 사회발전의 핵심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역사적,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분석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소고는 한국사회의 사회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후에 사회발전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토대가 되는 신학적 기초와 교회의 바람직한 사회참여 태도와 자세를 확인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속화되는 지구화 시대를 맞이한 21세기 한국 사회발전을 위한 교회의 과제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사회발전 지표와 기독교의 역할

한국사회와 기독교의 관계는 정치적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정치적 상황은 곧바로 기독교의 대정치적 역할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제적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사회발전 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정치적 지표는 '정치적 민주화'이다. 1990년대에 이르러 각각 김영삼, 김 대중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잇달아 들어서면서 정치적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되었고 이에 따라 기독교의 정치적 투쟁의 의미는 약화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성장에만 집착하여 사회참여를 기피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별로 공헌을 하지 못했던 보수적인 주류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생



겨나면서 교회 안에는 새로운 갱신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갱신의 기류는 이른바 사회통합적인 기능과 사제적인 기능을 주로 담당하여 왔던 보수적 기독교회에 속한 이들도 90년대 이후로는 이른바 시민운동을 통한 ‘정치적 민주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사실 진정한 ‘정치적 민주화’는 소수의 정치권력자들의 교체로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모든 국민이 나름대로의 주체 의식을 가지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정치적 민주화’의 참된 의미이다. 현대화로 인하여 국민들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화로 인하여 더욱 복잡화되고,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오히려 평범한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는 현상을 동반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더욱이 가속화되는 지구화의 현실은 ‘빈익빈 부익부’의 현실을 악화시킴으로써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소외계층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소외

계층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고려 없이 참된 민주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소외계층을 사회중심으로 품기 위한 사회변동의 기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교회가 진실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예언적 사명을 통하여 불의한 사회를 비판하고 소외된 기쁨을 끌어올리며,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과의 상통을 이루어 나가려면, 정의로운 정치체제의 확립과 체제의 올바른 기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혹은 사회봉사활동은 크게는 한국 역사 일반과 작게는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및 한국교회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한국교회 복지활동은 외국의 원조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이때 외원기관 가운데 다수는 기독교 계통의 기관이었다. 그 후 1960년대 이후 일반적인 교회의 복지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지만, 이 시기에 복지활동 영역에서 양산된 개별적 기독교인은 그 후에도 각종 사회복지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20세기 중반에 들면서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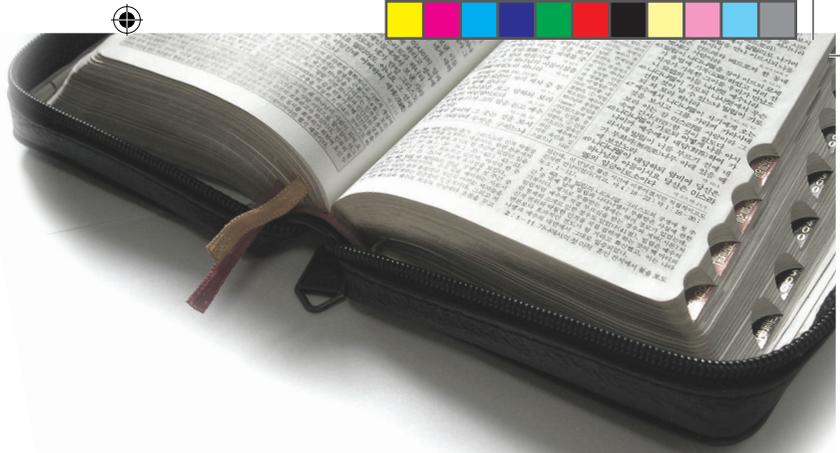
우리의 신앙과 일함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와 상관시킴으로써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함이 곧 소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교회의 현실은 교회만을 성스러운 현장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제사장직에 소홀하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

의 사회봉사적 책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대부분의 지역교회가 지역사회 봉사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역사회 어린이, 노인, 청소년, 빈곤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각종 각색의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대형교회 중에는 사회복지 재단을 설립하여 대대적인 복지사업을 전개하는가 하면, 일부 교회는 정부로부터 지역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전문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사회봉사에 대한 전문적 이론과 실천기술에 관한 도움이 필요했고, 사회봉사의 효과성에 대한 선교적 그리고 사회복지적 평가의 필요성도 생기게 되었다. 많은 교단들의 지도자들이 사회선교에 대한 정책을 논하기 시작했고, 교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훈련이 지교회에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의 3/4을 차지하는 전국대학의 기독교인 교수들과 전체 전문 사회복지 요원의 절반을 넘는 기독교인 전문 사회복지사들은 교회의 사회봉사가 보다 더 체계화, 조직화,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표현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를 둔 전국 60여 개 대학의 절반이 기독교와 직접(신학교), 간접(기독교계 대학)으로 연계되어 교과과정에 교회사회봉사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게 되었고, 몇몇 대학교에서는 교회사회사업과까지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사회의 현대화 과정 속에서 기독교는 근대 문명을 매개함으로써 현대화를 가속케 한 주요한 매체였다.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기독교가 많은 영향을 끼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성서의 번역과 보급 그리고 찬송가의 보급은 한국문학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활발한 기독교 문화적 활동은 사회발전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즉 현대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한 도덕적 문화적 위기에 처한 사회에 교회는 통합적인 도덕적 가치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며, 동시에 이데올로기 비판적인 세계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변동적인 기능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교회는 '문화의 성숙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선구자적인 고백과 각성을 하게 되며, 남한의 통일정책을 전향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등의 주목할 만한 공헌을 하게 된다. 남북의 기독교는 1995년 평화와 통일의 회년을 함께 선포하고 8월 15일 직전주일을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함께 지키기로 하였으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에 함께 연대할 것을 다짐하였다. 회년 정신의 실천과 교회의 과제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세웠다. 하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신앙고백운동. 둘, 남북 민간의 화해운동. 셋, 인도적 삶의 회복운동. 넷, 남북의 나눔과 더불어 사는 운동. 다섯, 남북선교와 하나의 민족교회 형성운동(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5년 8월 15일). 오늘날 교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이나 자선단체 등에도 많은 기독교계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보내기 때문에, 기독교의 나눔운동과 북한동포돕기운동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한국기독교회의 사회발전 참여를 위한 신학적 기초와 태도

한국교회의 역사를 조금만 주의 깊이 살핀다면, 한국 교회의 신앙은 그 발생기부터 한국 사회발전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근대화하여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겠노라는 근대화와 자주독립의 정신이 동기가 되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의 성격은 물산장려운동이나 금주, 절제운동을 통한 국채보상운동 등을 통하여서 계승되었다. 산업화가 성숙기에 접어든 근대화 과정에서의 한국 기독교 역시 사회통합적인 기능과 함께 사회변동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였음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이러한 만인제사장직은 오늘의 한국교회에 많은 반성을 촉구한다. 첫 번째로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당회라고 하는 지도집단으로서 교회의 의사결정과 정책을 주도하여 갈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결정적인 기준과 목표는 항상 이웃과 공동체의 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한 그리스도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과 일함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와 상관시킴으로써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함이 곧 소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다. 우리 교회의 현실은 교회만을 성스러운 현장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제사장직에 소홀하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몸된 교회로서의 본질과는 어긋나게 소수의 소리 큰 지체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각성이다. 그러므로 평신도 활성화를 통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활동의 정상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구화 시대의 사회발전과 한국 기독교의 역할

한국 기독교회는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신앙적 실천을 한국 사회 안에서 수행해왔다. 사회통합적 기능에 주력하여 왔던 교회들과 시대가 있었고, 사회변동적 기능에 힘을 쏟았던 교회들과 시대도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특별히 근대화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본다면 한국 사회 안에서의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못 크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발전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인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평등', '사회적 복지화', '통일 및 환경에의 관심'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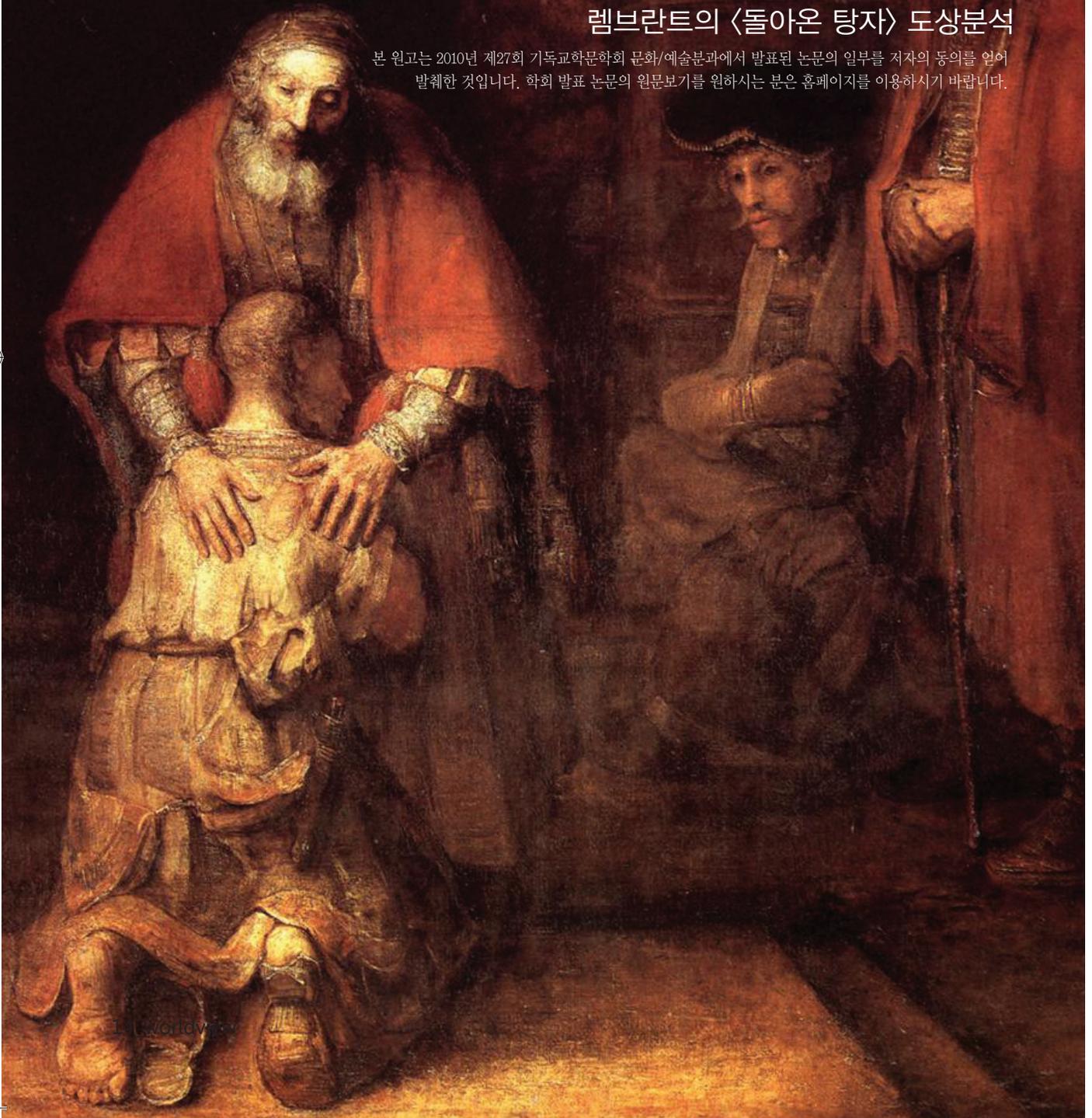
신앙과 삶의 일치의 당위성,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새로운 고백, 뿌리깊은 죄성에 대한 통찰에 기초한 지속적인 자기 개혁 등은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한 전제적 요소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적 기초의 확인, 그리고 구체적 실천은 한국교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복음을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할 것이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개방적 수용성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개혁되어진 교회라도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시민으로서의 기독교인들 각자에게도 자신의 삶과 태도만을 절대시하지 아니 하고, '하나님 사랑 · 이웃 사랑의 삶' 과 '작은 자와 함께 하는 삶'을 의식케 하여, 더욱 건전한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책임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삶으로 초대할 것이다.

글. 임성빈(장신대 기독교문화과 교수)

‘아가페 하우스’ 이야기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도상분석

본 원고는 2010년 제27회 기독교학문학회 문화/예술분과에서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저자의 동의를 얻어 발췌한 것입니다. 학회 발표 논문의 원문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www.worldview.kr



‘돌아온 탕자’만큼 교회와 기독교 문헌에서 자주 언급 되는 비유가 또 있을까.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이 비유를 “가난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움을 드러낸 위대한 스토리”로 보았는가 하면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이 비유에서 “가장 격정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견했다. 역대 많은 화가들이 이 테마를 화면으로 옮겼으며 그중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 van Rijn 1606-1669)도 예외는 아니었다.

흥미롭게도 다른 화가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탕자를 그렸다면, 렘브란트는 좀 달랐다. 본인이 직접 탕자가 되어 자신의 영적인 자화상으로 삼았다. 또 하나는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무렵부터 만년까지 이 테마를 지속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탕자의 비유’(눅 15:11-32)는 렘브란트의 삶과 예술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렘브란트가 수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그중 <탕자의 비유>가 매우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의 연작에서는 아들의 비행(非行)을 눈감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로서의 사랑에 찬 친절로서 그들을 보살펴주시심을 알려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점은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점 검해보기로 하자.

도상분석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소장한 3백만점의 작품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컬렉션 <탕자의 귀향>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순간(눅 15:11-32)에 주목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걸으로는 정적에 휩싸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두 인물은 전면의 따듯한 빛을 받으며 밝은 칼라를 띠고 있으나 그림의 나머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둡다. 아들이 입고 있는 누더기 황색 옷과 아버지가 걸치고 있는 붉은색 가운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맏아들의 협애한 이해에서 입증되듯이 지상적인 인간의 사랑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을 지닌 거룩한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고 있다(Rosenberg).” 탕자는 붉은 망토를 입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으며 아버지는 아들을 두

손으로 부여안고 있다.

화면 우편에 지팡이를 들고 수염을 기른 인물은 큰 아들로 파악된다. 그의 마뜩찮은 표정에는 아버지에 대한 투정과 동생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묻어난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친절하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 그에게 손해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몰인정으로 가득 차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접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맏아들을 소상히 표현하고 있다. 아들이 너무 늙어 보이지 않나 하는 의심을 품을 수도 있겠으나 고령의 아버지를 감안하면 아들의 나이도 제법 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큰 아들 곁에 금박모자를 쓰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인물은 재산관리인 혹은 집사로, 그리고 통로에서 얼굴을 힐끗 내밀고 있는 가름한 인물은 시종으로 판단된다. (이 시종은 렘브란트의 제자인 아헤르트 데(Aert de Gelder)가 사후에 그려넣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날 때만 해도 부잣집 아들답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낡은 속옷 차림에 상한 육체, 그리고 먼 길을 오느라 신발은 다 닳아 버렸다. 언제 빨아 입었는지 모를 지저분한 누더기를 걸쳤으며 얇은 옷 사이로 나약한 살갗이 흰히 드러나고 있다. 그의 행색은 어느 모로 보나 거지에 가깝다.

실제로 탕자를 거지로 묘사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일찍부터 아름답고 영웅적인 인물보다는 추한 사람, 부랑자나 죄인들에 유난히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발드윈(Robert W. Waldwin)은 거지를 묘사한 것을 “암스테르담의 냉마와 빈민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의도로 파악하였으며,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숭고한 낮아짐과 청빈”을 강조하는 성경의 정신과 연관이 있다. 가난하고 헐벗으며 질병을 앓는 나약한 사람들은 그의 그림전체에 고르게 등장한다.

1633년에 제작한 <예수의 내리심>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중에 그로테스크한 인물을 등장시켰는가 하면 <회개하는 베드로>(1645)에선 죄인들에 대한 거룩한 사랑을, 비슷한 관점은 1654년에 제작한 <이삭의 번제>, <사울의 회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에서도 발견된다. 이런 작품들 중에서도 압권은 <백굴더 판화>(1647-1649)인데 여기서는 아프고 눈멀고 가난하며 나약한 인물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그리스도 주위에는 사방에서 몰려 온 빈민, 아이들, 치유를 받기를 기다리는 환자, 절망에 빠진 사람들로 붐빈다. 죄와 추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만이 ‘깨뚫어본다.’ 렘브란트는 이외에도 거지만을 따로 그리기도 했다. 집을 돌려 구걸을 하거나 거리에 쭈그려 앉은 거지, 그들은 악기를 켜는 떠도는 유랑자의 모습으로 또는 목발을 딛고 다니는 모습으로 각각 다르게 묘사했다. 심지어 렘브란트는 1630년작 <뚝방에 앉은 거지>에서 자신을 거지로 묘사하기도 했다. 1636년작 <돌아온 탕자>와 1645년작 <돼지치기가 된 탕자>, 그리고 1669년작에서 탕자를 뱀새나고 쇠약하며 천한 인물로 그린 것은 탕자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 ‘수치속에 가려진 사랑스러움’(a loveliness hidden in shame)을 발견하려는 렘브란트의 시각이 담겨있다. 그림에서 그의 아버지의 눈을 보면, 인간의 죄를 보지 않으려는 것을 상징하듯이 눈이 감겨져 있다. 그의 빛나는 옷과 인자한 얼굴에서 우리는 아들의 누추함 그 자체를 사랑의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그가 짙어진 고뇌를 중식시키는 은총의 광휘를 발산하는 은화한 색을 발견할 수 있다. 탕자를 거지로 묘사한 것은 성경의 관점이 투영된 탓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부성에

이 작품에서 렘브란트는 탕자에 초점을 맞춘 것과 함께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초점을 맞춘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자비를 알려준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그의 ‘목을 안았다’(눅 15:20). 한때는 세속적 위안과 쾌락에 빠졌고, 썩은 연못처럼 오염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치다 온 더럽고 추한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양 덮석 껴안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꿈꾸던 것보다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베풀었다. 아들은 품꾼으로 삼아줄 것을 청원했으나 아버지는 멋진 옷, 좋은 신, 반지, 맛있는 음식 등 그 집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굴욕의 여행을 다녀온 아들을 맞이했다. 자신을 위해 준비된 풍성한 식탁과 즐거운 환영잔치를 둘째 아들은 미처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렘브란트가 바라본 아버지는 어떤 분이였을까? 렘브란트가 묘사한 아버지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지닌 인자한 노인의 모습이다. 그의 에칭(1636년)과 유화(1669년)는 스타일과 해석에 있어 현저히 차이가 난다.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 탕자의 부패와 상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노년이 되어서 인자한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즉 청년기의 작품에서 피골이 상접한 탕자가 부각되었다면, 노년기의 작품에선 인자한 아버지가 눈에 띈다. 실제로 이 작품을 바라보면 감상자의 눈이 아버지에게 맞추어지도록 사려깊게 구상되었다. 감상자들이 아버지의 부드러운 모습과 마주하도록 렘브란트는 일부러 실물 크기로 제작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팔을 벌려 탕자를 안고 있는 모습이 마치 감상자를 부둥켜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림의 핵(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긍



홀과 사랑이 묻어나고 초월적인 빛으로 물든 모습이다. 아버지의 눈은 마치 ‘눈먼 사람’을 ‘눈을 뜬 사람’처럼 관대하게 봐주려는 듯 지극히 감겨져 있다. 가정사의 불행과 시행착오, 그리고 눈부신 성공가도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렘브란트는 인간 내면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이 심어 주신 아름다운 영혼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림의 눈은 다윗의 편지를 읽고 있는 <밧세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베드로>, <십계명을 들고 있는 모세>, <시므온>에 등장하는 눈빛을 연상시키는데 그의 시선은 아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현재를 뛰어넘어 과거에 대한 회한과 감사와 기대를 품고 있는 듯한 시선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손에서도 느껴진다.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손은 강한 손이 아니라 여성처럼 부드럽고 연약한 손이다. 그 손에 깃들인 사랑과 용서, 사랑과 축복, 사랑과 피신, 사랑과 기쁨 등이 전해지는 것 같다. 헨리 나우웬은 아버지의 손에 대하여, 근육질의 왼손이 아들을 단단히 쥐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라면, 어루만지고 쓰다듬는 듯한 오른손은 위로와 평안을 주는 어머니의 손이라고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손은 사스키아(Saskia)와의 아름다운 신혼을 생각하며 그렸음직한 <유대인신부>(1666년)에 나오는 레베카의 손을 닮아 있다. 레베카와 이삭이 단단한 신뢰로 결합되었듯이 렘브란트는 아버지와 탕자 사이의 끈끈한 신뢰를 다름 아닌 손으로 표현하고 있다.

렘브란트는 ‘용서’가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돌아온 탕자>를 보면 아버지의 어깨에 붉은 색 망토를 두르고 있는데 그 망토가 노인의 상반신을 덮고 있으며 돌아온 아들을 맞이

하는 순간을 한층 의미 있게 만들고 있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붉은 색의 망토로 아들을 휘감고 있다. 물론 여기서 붉은 망토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낸다. 대속의 피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아름답고 숭고한 내용이 담겨있다.

멍에를 지우며

이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렘브란트가 작품을 제작할 때 ‘멍에의 비유’ 전통을 의식적으로 끌어들었다는 점이다. 17세기에 제작된 작품을 보고 21세기의 감상자들이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멍에의 비유’를 결부시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에서 렘브란트는 무릎을 꿇은 아들에게 어깨에 손을 얹어 마음의 짐을 털어주고 있다. 도상의 전통으로 볼 때 로마 미술에서 손을 펼치는 동작은 권위의 상징이었으나 기독교 전통에서는 무릎을 꿇은 죄인에게 용서를 보여주는 주요한 동작으로 바뀌었다. 멍에를 매는 것(yoking)과 어깨를 잡는 것(shoulder handling)의 병행은 수도원에서의 서약, 성직자의 위엄, 결혼, 죄인이 하나님과 연합됨, 그리고 돌아온 탕자 등과 같은 다양한 언어적 및 시각적 재현에서 두드러진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주제들은 그리스도의 ‘쉽고 가벼운’ 멍에(Suave Jugum)를 기용했으며, 그 결과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렸다. 사도 마태는 짐이나 속박, 항복, 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멍에를 역설적으로 뒤집었다. 마태가 언급한 의미는 후대에 와서도 쉽사리 변하지 않았다. 중세의 성직자는 “너의 영혼이 쉴 안식처를 발견할 것이기에 이 멍에는 쉽고 이 짐은 가볍다. 이 멍에는 너를 땅으로 주저앉히기

보다는 너를 하늘로 부상시켜줄 것이다. 이 짐은 날개이지 짐이 아닌 것이다. 이 멍에는 거룩한 사랑이요 이 짐은 형제의 사랑이다. 여기서 안식을 찾게 되리라”(Aelred of Rievaulx)고 언급하기도 했다. 렘브란트와 동시대의 인물 느헤미야 로헤르스(Nehemiah Rogers)는 이 비유를 죄의 짐을 벗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멍에로 이끌리는 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멍에를 지도록 그대의 목을 숙이지 않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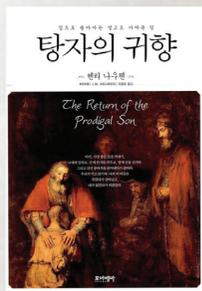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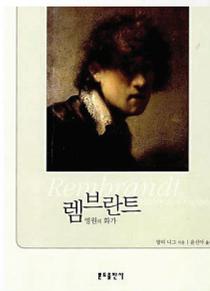
요약컨대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는 동작은 ‘사랑의 멍에’와 ‘용서의 멍에’를 지우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탕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은 멍에를 매는 행위로 전달된다. 탕자가 스스로 멍에를 매기 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응한다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탕자의 비유는 곧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주제임을 생각할 때 새삼스러울 것이 없으나 렘브란트는 한 공간에서 아버지와 탕자를 대비시킴으로써 개혁교회의 정신인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강조하였다. 양식면에서 보아도 당시에 성행하던 네덜란드의 장르 회화(Genre Painting)와 구별되게, 대단히 우의적인 방식으로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비(칼빈)’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유에서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것이 있다면, 탕자의 비유는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드라마’라는 사실이다. 이 비유는 요셉 핏츠머 이어(Joseph A. Fitzmyer)의 표현처럼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환영’이자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 성경을 묵상하며 그림을 그렸던 렘브란트가 이 점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철부지와 부랑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친 육신을 안아주며 상처를 보듬어주며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수많은 기독교 문헌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모든 것이 은총이며, 특히 자신의 과오로 잘못 들어선 고난의 길에서 부서져버린 영혼이 유일하게 의존할 곳은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음을 렘브란트는 이 불후의 명작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무한히 넘쳐나는 자신의 사랑을 피조물에게 나누어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오늘도 자신의 ‘아가페 하우스’에 초청하고 계심은 케케묵은 과거의 얘기라기보다 엄연히 현재진행형의 사건으로 파악된다.

글. 서성록(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미학)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책



Nigg, Walter(1951), *Rembrandt Maler des Ewigen*, 윤선아역(2008), 렘브란트 영원의 화가, 서울:분도출판사.

Nouwen, Henri J.(1994),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김향안역(1997), 탕자의 귀향, 서울:글로리아

Visser't Hooft, W.A(1957), *Rembrandt and Gospel*, Philadelphia:Westminster Press, 한중식역(1992), 렘브란트와 복음서, 서울:혜선출판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가지 비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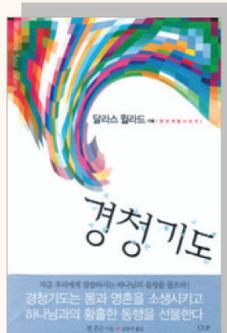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1km일까? 1m일까?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기독교 영성학 교수인 저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 추구하고 애쓰는 과정에서 탐구한 지혜와 경험담들이 겸손하면서도 유익하며 흥미롭게 담겨 있는 이 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선물이다.

벤 캠벨 존슨 지음 | 박주성 옮김 | 신국변형 | 296쪽 | 12,000 원

2011년 새해를
CUP와 함께!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출판 CUP 02)745-7231 | cup21th@paran.com | www.worldview.or.kr

꿈을 이루는 사람들

DCTY(Dream Comes True for You) 대표이사

권성윤

Q. DCTY가 리틀뱅크, 캐너비, 오모로이, 캡틴파파 등의 아동 북 브랜드와 맑은기쁨이라는 도서출판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스쿨교재를 출판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2004년도에 샘물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아내의 권유로 어떤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기독교학교를 시작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샘물교회에서 샘물초등학교 설립을 준비하던 당시 저는 교재개발 팀장이었는데 커리큘럼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담당 목사님이 일반학교 교재를 사용해서 기독교학교를 운영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기독교학교에서 일반학교 교재를 사용한다는 것이 무언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담당 목사님이 기독교 학교 교재가 없다는 말씀에 옆에서 누군가 커리큘럼을 만들수가 있다고 하기에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해보라고 하시죠. 라고 말했다가 그 때부터 붙들려서 1년간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비로소 많은 기독교 커리큘럼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처 소개되지 못했지만 미국에 좋은 커리큘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중 일부를 가지고 샘물초등학교 커리큘럼을 짜게 됐고, 그 때 만든 커리큘럼을 지금도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독교 학교 커리큘럼이 짜여진 것은 그 때가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그 때가 계기가 되어 지금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우연한 기회에 책임을 맡게 됐다고 하셨는데 다른 큰 동기는 없으셨나요?

어쩌다가 하게 되었어요. (하하) 출판을 하게 된 것은 그 때 보니까 의외로 책은 있어도 수업 전반에서 실용적으로 쓸만한 책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은 이렇게, 책임기는 이렇게 하라라는 것처럼요. 물론 학습법들을 다룬 이론서는 많았지요. 그런데 교사들을 훈련시키려면 책이 필요했고 책들을 번역하다 보니 저만 보기가 아까워서 출판을 하게되었습니다. (적자를 봤지만요^^)

그 때 공부를 많이 했죠. 그 후 기독교세계관이 담긴 커리큘럼을 짜고, 수업을 하다보니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은 들었지만요^^

Q. 다양한 기독교 교육 서적이 출판되고 있는데, 추구하는 철학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더불어 다른 사역들도 하고 계신데 알려주세요.

저희 책에 소개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저희 책에 소개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기독교 홈스쿨 가정과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한 교재와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학문과 성경을 통합한 책과 교재를 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른 통합적 사고를 가진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저의 임무입니다.

교육에 관련한 책들을 계속 출판할 계획인데 결국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도 바뀌지 않고 한국 기독교가 바뀔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교회는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현재 한 선교 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의 수가 20%선인데 반하여, 고등학생 3.5%, 대학생은 4% 정도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이상태로 1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의 교인 수가 절반으로 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드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인본주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학교에서는)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가르치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말할테니까요. 아이들은 교회에 오지 않고 학원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기에 이렇게 되는가?'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다른 사역으로는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을 냈는데 안 팔리더라고요.(하하) 책들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공교육에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에 컨퍼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학문과 성경을 통합한 책과 교재를 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른 통합적 사고를 가진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저의 임무입니다.

런스를 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새로운 교육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나이가 되면 집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되었고 고대 교수님 두 분이 자원해서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때 놀라운 발견을 했죠.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홈스쿨링 아이들은 수업을 하지 않으니깐요, 부모들은 수업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offline 모임에서 계속 다루주려고 합니다.

Q. 사명감이 투철하신데, 직접 교육 현장에 설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하지만 제 분야가 아니어서요,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커리큘럼을 분석하면서 보니, 현재 있는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겠더라고요, Reading Level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행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래의 코스를 바꿔야 해요, 코סי이기 때문에 밑에서 촘촘히 쌓아와야 위에서 할 수 있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야기가 DCTY로 시작해서 결국은 교육으로 온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요?

결국 사회의 리더를 키우는 것인데 리더가 꼭 앞에 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현재 기독교인이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를 변론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변론한다는 것은 수사학인데, 변론하려면 자기 논리가 확실해야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모범답안을 주고 외우라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생각하고 멘토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대화하고 만들어가는 문화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문화를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려면 교육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재 교회의 모습, 리더들을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은것 같고, 지금 청소년들을 잘 가르치면 10년 후면 그 아이들이 리더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 아이들이 리더가 되면 굉장히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청소년 사역에 온힘을 쏟는 것이 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좋은 전통들을 가르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전통을 죽일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세운 기둥들에 대해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했던 역할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없었을 것이거든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미국은 독립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 성경적 가치에 따라 가치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김구, 안창호, 유관순 모두 보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고 우리나라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덕분인데 우리는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교회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질 수 없는데 그러한 내용이 담긴 위인전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걸 모르는 거죠, 이 일을 위해 한국 기독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활동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차세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청소년사역)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학교를 하는 방향으로요, 대안학교, 기독교학교가 계속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학문적이 되어야 하는데 신학도 알아야 하고 세계관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세계관을 전도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이와 관련해서 세계관 동역회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Understanding The Times 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여름에 2주씩 캠프를 합니다, 10가지 주제를 6가지 per-

specive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인데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하는 책임입니다. 정확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화가 설명되어 있는데 각 perspective가 어떻게 각 주제에 사회에 반영되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성령운동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부딪치는 것은 정말 선명한데 기독교에서 접근하는 것은 두루뭉실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접근법은 이젠 우리나라 사회 생활비, 교육수준도 높은 편인데 성숙한 사회로 가는데 못 맞춰간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주제를 각 perspective로 전달해주고 어떻게 투영되어 나오는지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Q.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자녀분들을 홈스쿨링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2005년부터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을 공부하다보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성공적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협력기관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약합니다. 미국에는 많은 홈스쿨링 교재들이 나오고, 상당히 인정을 받거든요. 실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재를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과서와 홈스쿨링 교재는 차이가 많아요. 교과서는 위에서 나오는 지침에 맞춰서 쓰는데 부모들이 쓰는 교재는 구체적인 부분이 많고, 모양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게 됐고 이번에 아이들 진학도 잘 되었습니다.

Q. 아이들 스스로가 홈스쿨링을 하면서 좋다고 한 점이 있나요? 홈스쿨하는 아빠로서 자녀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직접 표현을 해요. 큰아이는 기독교세계

관 책을 다 읽고 대학을 갔거든요. 성경적 세계관 체계가 잡혀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을 받아요. 스스로 어려운 책들을 읽어내고, 둘째 아이도 국제학교에서 잘하고 있고, 집에서 배웠던 가치들을 학교에서 다 쓰더라고요. 막내도 홈스쿨링을 하는데 만족감이 큼니다.

아빠로서 별로 함께하지 못해요. 늘 미안한 마음이죠. 홈스쿨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지만 작업해야 할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아이스하키를 하고 교회 같이 다녀오고, 밥 같이 먹고, 주말 저녁에는 제가 밥도 해준답니다.(^^)

Q. 마지막으로 다양한 역할하시면서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쏟고 계신데 이러한 것을 해나기는데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 사역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한편으로는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백성은 나의 말로 가르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나의 자녀를 나의 말로 가르치겠다. 저는 그렇게 많은 기독교 교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고민을 합니다. “그만해야하는지 계속해야 하는지...”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움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좀 더 확장되어 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좋은 책은 참 많은데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마음을 합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데 뜻있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VIEW를 통해 꿈꾸는 기독교세계관적 목회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이하 VIEW)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돌아와 교회에서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다보니 이제는 제가 언제 유학을 갔다 왔다 싶은 정도로 까마득히 오래전 일처럼 생각이 됩니다. VIEW에서의 유학 경험들을 지면을 통해 나눔으로 VIEW를 소개하고, 더불어 기독교세계관 공부가 목회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나눔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의 목회적 적용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김정일목사
충신대신대원(M.div),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졸업(MA)
현재 강남교회 부목사로 사역중

VIEW와의 만남

목사안수를 받은 직후인 2004년 12월, 저와 온가족은 이민가방 9개를 챙겨서 유학의 길에 올랐습니다. 밴쿠버에 도착하여 타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갑자기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을 구하고, 이사하고, 차를 사고, 보험을 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은행계좌를 열고, 전화와 인터넷을 설치하는 등의 누구나 거쳐야만 하는 초기 정착의 과정은 처음 도착한 나그네들에게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와 똑같은 상황을 미리 경험한 VIEW 원우들이 공항 픽업에서부터 정착의 전과정을 헌신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분들도 처음에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었고, 이제는 그 받은 섬김을 다른 분들에게 흘려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캐나다 생활에 적응한 다음에는 다른 가정의 정착을 돕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은 교실에서의 기독교세계관 이론이 아니었고, 삶 속에서의 섬김이었습니다. 그제 사실은 기독교세계관 공부의 진정한 목적이기도 하구요. 유학을 통해 누린 많은 혜택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섬김과 교제의 장이 된 VIEW 공동체와의 만남이었습니다. VIEW 원우회가 아니라 VIEW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교제가 원우들끼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우들의 가족들 모두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VFM (VIEW Fellowship Meeting)은 VIEW의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 모임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VIEW 가족들이 VIEW 국제센터에 모여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고, 매주 새로운 강사님을 모시고 다양한 강의를 듣고, 서로의 비전을 나누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VFM은 일주일에 한번이지만 씨리와 랭리, 아보츠포드, 칠리악, 코퀴틀람등 밴쿠버에 지역별로 모여서는 VIEW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며 서로를 돕고 섬기며 유학생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세계관 공부

VIEW는 한국에서 기독교대학을 설립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던 DEW(기독교학술동역회, 현재는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통합)에 의해 밴쿠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1999년 7월, 캐나다 최고의 기독교대학인 Trinity Western 대학의 신학대학원인 ACTS와 공동으로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과정(MACS)을 개설하였고, 2002년 7월부터는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두 학위과정 모두 기독교 역사상 종합대학에서 수여하는 첫 세계관 대학원 학위입니다(자세한 학교안내는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www.view.edu).

VIEW는 학교 이름에 ‘기독교세계관’이라는 명칭이 들어갈 정도로 지향하는 바가 뚜렷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문학, 가정, 과학/기술, 창조론, 환경, 직업, 타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조망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신앙과 삶의 이원론을 타파하고, 복음의 통전성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제시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한 학기 3학점 3과목씩~4과목씩 4~5학기정도면 신대원 출신자들은 M.A과정을 마칠 수 있고, 2~3학기 정도면 디플로마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받는 방식이 아니라 집중강의 방식(Intensive Course)으로 진행됩니다. 강의가 일주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경까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 수업방식은 강의 전 과제와 강의 중 과제, 강의 후 40일안에 써야하는 텀 페이퍼까지 상당한 분량의 과제와 학업성취도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VIEW과정이 ATS(북미주신학교협의회)가 학위를 인정하는 북미주 최고의 프로그램 과정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엄격히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한 학기 강의가 마치면 VIEW에만 있는 전통인 텀 페이퍼 데이 행사를 합니다. 각자가 작성한 페이퍼를 요약해서 발표하는 시간으로 한 학기 배운 것들을 서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VIEW에서 공부하며 누린 혜택 가운데 하나는 밴쿠버라는 도시 안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인근 신학대학이나 지역교회에서 개최하는 특강이나 세미나를 통해 북미주의 훌륭한 교수들의 탁월한 강의들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유학하는 기간에 폴 스티븐스, 브라이언 왈쉬, 오스 기니스, 브루스 디마레스트, 마이클 고힌 등의 강의를 직접 학교를 비롯한 밴쿠버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교실에서 배운 지식이 유학생들의 큰 소득이지만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은 빼 놓을 수 없는 큰 자산입니다. 모자이크에 비유되는 캐나다 속에서 다민족이 함께 살며 그 가운데서 통일성을 이루는 모습은 참 인상적입니다. 한국과는 다른 다양한 문화는 저의 고정화된 사고의 지평을 넓혀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세계관적 목회는 삶의 전 영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성도들에게 열어주고 하나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적 목회를 꿈꾸며

2년 6개월여의 VIEW에서의 유학을 통해 저는 앞으로의 목회의 방향과 세계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세계관적 목회입니다. 목회가 다 기독교 세계관적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목회하면 그게 기독교세계관적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세계관적 목회가 지향하는 몇 가지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세계관운동이 지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영혼이 가는 천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영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성도들에게 열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총체적, 통전적(holistic) 복음에 대한 강조입니다. 복음은 개인의 영혼뿐 아니라 온 피조세계를 회복시키는 기쁜 소식입니다. 총체적 복음은 복음전도와 사회적책임의 불가분성을 강조합니다. 셋째는 이원론과 혼합주의의 타파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의 일과 일상에서의 영역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세속의 일로 잘못 구분하는 이원론적 태도를 교정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혼합주의적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성도들은 그들의 전 삶을 통해 영적예배를 드리는 일상의 성자들,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한국교회로 돌아왔지만 부목사로서 당장 목회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적지만 지금까지 목회의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를 통해 기독교세계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나라에 대한 연속 주제설교를 해 보기도 하고, 직업과 소명, 생명윤리, 재물관 등과 같은 주제들을 설교로 풀어내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기독교세계관 학교를 여는 일입니다. 혼자 꿈만 꾸고 있었는데, 담임목사님의 제안과 지원으로 지난 봄부터 11주 과정의 기독교세계관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봄에 약 100여명, 가을 학기에 또 100여명의 학생들이 등록해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2시간 30분가량 강의를 듣고 조별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년 봄 학기부터는 외부에도 학교를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 세계관포럼을 개최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의 기독교세계관운동은 초기부터 학자중심으로 시작되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세계관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세계관에 관심을 가지고 목회에 접목하길 원하는 목회자들간의 연대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매년 1~2회



씩 목회자 세계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13일(월)에 4번째 목회자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세계관에 관심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세계관 캠프를 개최하는 일입니다.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 청소년캠프가 양승훈 교수님과 VIEW 동문들을 중심으로 충북 보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50여명의 중고생들이 참석하여 한번은 ID(정체성) 캠프와 또 한번은 창조론 캠프로 진행되었습니다. 좋은 반응과 함께 한국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캠프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3년여 동안 시도했던 것들을 적어보았지만 역시 아직은 미흡합니다. 앞으로 기독교세계관 교재개발, 제자훈련,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들을 위한 특화된 세계관학교, 성경공부 등 아직도 기독교세계관이 목회에 적용되어야 할 많은 영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세계관은 삶이다”란 명제를 잊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 글을 통해 VIEW에 관심을 갖고 더불어 기독교세계관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세계관목회자 포럼

일 시 : 2010년 12월 13일(월) 오후 2시~5시 30분

장 소 : **강남교회** (담임 송태근목사, www.knpc.or.kr)

참석대상 : 기독교세계관에 관심 있는 목회자

회 비 : 10,000원

내 용 : 1) 특강 : "기독교인의 투자관" (김승욱교수, 중앙대 경제학과)

2) 목회사례발표/ 토론 : 기독교세계관의 목회적 적용

(보은교회 정민목사, 강남교회 김정일목사)

3) 석식교제



신청 및 문의 : 김정일목사 (icejikim@gmail.com)

주관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세계관목회자포럼 위원회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분과 모임



28_worldview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분과 모임은 교육의 영역에서 신앙과 학문 간의 통합을 추구하는 모임으로, 현재 매 학기 3회 정도의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박상진 교수님(장신대 기독교교육과)께서 분과장을 맡으시면서 1학기에는 “기독교적 교육의 고민과 과제”, 2학기에는 “통일을 향한 기독교교육”이라는 대주제 아래 중요한 이론가와 현장가들을 모시고, 강의를 들으며 같이 배우고 토론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 분과에는 이 영역에 활동 중인 박사님들과, 학교 교사 등 현장가들, 그리고 대학에서 관련 전공으로 공부 중인 석, 박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늘 꾸준히 와 주시는 교수님들, 현직 학교 선생님과 교장선생님, 관련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계십니다. 전자 메일(mailing list)로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해, 실제로 꾸준히 모이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임의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모임에 함께 하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2학기에는 특별히 이화여대 김정효 교수님(초등교육과)이 장소를 섭외해 주셔서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3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주제는 그 시기가 날로 당겨져 오고 있는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로 잡았습니다. 9월에는 고신대 기독교교육과 임창호 교수님을 모시고 “북한의 교육현실”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을 위한 교회를 이끌고 계신 임창호 교수님은 가지고 계신 북한 교과서를 스캔해 오셔서 실제로 북한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날은 또한 실제로 탈북한 청년도 함께 참석하여 자신의 북한에서의 교육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북한을 낭만적으로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0월에는 이러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현장에서 동분서주 활동 중이신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 선생님을 모시고,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뒀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현장가의 가슴 저런 고민과 수고들을 느낄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모임에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기독교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학을 하시다가 기독교통일학회 활동, 통일교육 쪽으로 집중하여 공부하고 활동하고 계신 권성아 박사님께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학문적으로 풀어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의 모임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통일을 교육의 영역에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011년에도 2010년과 같은 방식으로 대주제 아래 몇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획이 나오는 대로 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 홈페이지(<http://www.worldview.or.kr>)를 통해서도 공지하겠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글. 이종철 연구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얼마전까지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야단이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배추김치 찾아보기가 힘들고, 밀반찬으로 나오는 김치를 돈주고 사먹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김치 파동의 원인 중 하나는 유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볼 만합니다. 산지에서 농부들은 포기당 천원씩 밭 뚱기로 중간도매상에게 팔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한 포기에도 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먹는 형편이라 농부나 소비자 모두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영화의 사정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영화 제작자들은 애써 만들어도 극장에 걸기 어렵고, 신앙인들은 기독교영화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서울 기독교영화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극장에서 펼쳐졌던 서울기독교영화제는 올해로 벌써 여덟 번째를 맞습니다. 기독교영화를 통해서 하나님나라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영상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자리매김하기 위한 목표로 2003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해마다 주제를 달리해 온 서울 기독교영화제의 금년 주제는 <터치 유, 더 치유 (Touch you, The Healing)> 입니다. 앞의 영어 '터치 유'는 스마트폰의 터치를 연상시키는 가운데 각박하고 물질중심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의미하며, 뒷 부분의 한글인 '더 치유'는 현대인들을 어루만지면서 아픔과 소외를 고치는 치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마9:35) 모습을 영화를 통해 경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화제를 통해 선보일 영화들은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통해 알게 모르게 받아왔던 상처들을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듯 합니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이창규 감독의 <고르고초 하루나 마타타 - 지라니 이야기>는 이번 영



화제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가난한 학생들이 한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꿈을 키우고 자라나는 모습을 그린 다큐멘터리 작품입니다. 선교사들의 헌신도 빛을 발하고 있지만,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희망을 간직하기 시작한 자라니 합창단원들의 모습은 관객의 마음에도 역시 사랑과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갈 무렵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교만과 절망의 상처들이 영화 속 아이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켜보게 되면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 기독교영화제의 의미와 역할은 단지 기독교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좋은 영화를 한 곳에 모여 볼 수 있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비싼 배추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산되는 배추가 원래 적다거나, 아니면 농민들이 배추를 재배하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리면 배추파동은 내년에도 반복되고 말 것입니다. 영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양질의 기독교 영화가 제작되고 젊은 영화인들과 제작자들이 기독교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는 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기독교영화제는 매년 사전제작지원을 해오는 한편으로 경쟁부문을 도입하여 시상하는 일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가 영화 속에 드러나는 단편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왔습니다.

특히 단편영화 경선 외에도 금년에는 교회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들을 모아서 우수한 작품을 시상하는 새로운 부분을 도입함으로써 영화를 영상이라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교회사역 속 깊이 침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마다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하나님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각 교회에서 만든 교육용 영상콘텐츠들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영상시대에서 자라나는 신세대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번 영화제가 단순히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교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가할 만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기독교 영화 하면 옛날 영화 <벤허>의 감격만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제 젊은 영화인들이 새로운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서울기독교영화제가 무엇보다도 기독교 영화인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기독교 영화의 발전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관계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기독교영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해집니다. 바로 기독교영화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소비가 있는 곳에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서울기독교영화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영화의 소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확장시키는 도구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글. 강진구(고신대학교 컴퓨터영상선교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드라마, 은혜와 죄의 경계에 서다

태초에 드라마가 있었느니라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거대한 드라마이다. 감독이자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무대로 삼으신다. 그 무대에 올릴 광대한 드라마를 위하여 궁창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소품을 꾸미신다. 무수히 많은 소품 가운데 해와 달, 지구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창조행위는 말씀을 통해 이뤄진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imagine) 것을 말씀하 시대 그대로 이뤄진 것이다. 결과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틈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했던 타락천사가 영과 육의 존재인 사람을 유혹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지만 철저히 육의 존재로 변질되어버린 인간을 두고 볼 수만은 없으셨다. 자칫 인간의 드라마는 전적으로 비극(tragedy)에 떨어질 뻔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본래의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성자 하나님을 보내기로 하셨다. 그 길은 영광에서 고난으로, 부요에서 가난으로, 존귀에서 치욕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신학자 발타자(Hans Urs von Balthasar)는 이를 신적 드라마(Theodrama, Divine Drama)라고 이름붙였다. 이 신적 드라마가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드라마에 한 등장인물이 되어 무대에 오를 때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게 된다. 자아중심적인 에고 드라마(ego-drama)는 테오드라마(theo-drama)를 만날 때 진정한 삶으로 완성되어간다.



신적 드라마에서 인간의 드라마로

무(無)의 블랙홀에 빨려들어가 아무런 존재를 느끼지 못할 뻔했던 인간이 의미



의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에 드라마의 원형이 있다. 드라마를 기독교의 원형적(archetype)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창조의 모방이요, 회복을 전제로 한 비극의 구속 행위가 된다. 기독교는 이 원형드라마를 통해 인간의 삶을 죄에서 구원으로 끌어올리고 승화시키는 과정이다. 반면 그리스적 예술관은 철저하게 비극론과 숙명론에 머물러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연극을 통해 카타르시스(catharsis)를 체험하므로 삶을 정화(淨化)시킨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 지평은 여전히 땅에 속해있다. 육으로 육을 정화한다고 기록해질 수 없는 이유에서다. 성령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죄의 본성만 더욱 교묘하게 치장될 뿐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6)

인간의 드라마는 때로는 장엄미와 엄숙미, 우아미 등으로 고양되기도 했지만 결국 인간적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다. 장대한 어떤 드라마보다 더 역동적으로 요동쳐 온 인간의 역사가 스스로 기록해 지지 못한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인간의 드라마가 사람들을 눈물짓게 하고, 웃게 하고 감동을 선사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몸짓이다. 은혜를 떠난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아우성이다. 인간은 비극이라는 함정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TV드라마는 양면적 속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긍정적인 것은 드라마가 사실주의를 내세우면서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현실의 거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시청자들은 화면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스토리, 상황을 통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기도 하며, 타인의 삶을 훑쳐보는 등 쾌감, 대리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 이는 라디오-청취자 관계에 머물러 있던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드라마는 삶의 여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허구(fiction)를 진짜 현실로 보이게 만드는 연금술이다. 가상현실은 TV드라마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이미지로 옷입는다.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몰입할수록 현실-허구의 관계는 모호해진다. 시청자들은 언젠가 자신의 진짜 현실보다 드라마의 허구적 현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드라마를 보다가 울고 웃는 감정이입은 정상적인 것일지라도 드라마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신경증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미 도가 넘은 반응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대의 드라마가 가지는 경향 중 하나는 거대담론을 거부하면서 점점 개인의 일상적 이야기에 환호한다는 사실이다. 시청자들은 전에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대변해줄 다른 이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한다. 남의 이야기를 부담없이 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폭로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이 개제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방송되는 드라마는 대부분 에고드라마이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은 새로운 가족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시청자들이 어떤 드라마를 집중적으로 놓치지 않고 보는 경우, 그들은 자신의 식구, 이웃보다는 드라마에서 만나는 배역에 자신을 투영하고, 하나의 가상 공동체를 만든다. 드라마를





시청자들의 몰입도는 시청자들이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과 정비례한다. 드라마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통해 선택된 새 가족인 셈이다.

드라마에서 무슨 선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는 드라마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V매체에 방영되는 드라마는 그 종류도 셀 수 없이 많다. 아침드라마, 월화드라마, 수목드라마, 주말드라마 등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정규 방송에 막장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다행인 것은 창사 특별드라마, 설, 6·25, 추석 특별드라마 등은 가슴흔흔하고 인간미 깃든 소재를 택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드라마 소재는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가족이 등장하지 않는 드라마는 거의 없다. 하지만 누가 가족의 이미지를 생산하는가. 시청자들은 그 가족의 이미지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

지금 방영되는 드라마는 종종 선정성, 폭력성, '막장'이란 딱지가 붙어 윤리적 논란마저 끊이지 않는다. 드라마를 두고 많은 이들이 막장스타일이라 염려하고 있다. 심지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미화되고 조장되고 있는 상황은 심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오래 전 <옥탑방 고양이>(2003)라는 인기드라마에 속했다. 이 작품은 혼전 동거를 공공연히 조장한다는 의견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에도 대중드라마의 그런 속성은 쉽게 정화되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방영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선정적 소재들이 얼마나 많이 편재되어있는지 알 수 있다.

MBC 드라마 <황금물고기>에는 장인과 사위가 한 여자를 두고 삼각관계에 빠진 상황이 그려지고, <주홍글씨>에는 주인공이 쉽게 낙태를 결정하고, 남편의 옛 애인과 갈등을 겪는다. SBS 드라마 <세자매>에는 남편의 첫사랑이 내연녀로 등장하여 복수심을 일으키게 하고, <나는 전설이다>는 주인공의 외로움을 극대화 시키려고 역시 남편의 애인이 등장하며, <여자는 몰라>에서도 남편이 외도한 뒤에 그 아내가 이혼을 하고 자아를 찾아 나선다는 줄거리로 구성되어있다. KBS 2TV 드라마에서도 이와 같은 소재는 경쟁적으로 영상화되었다. <바람불어 좋은 날>은 남편의 첫사랑이자 아이의 엄마인 여인이 등장하고, <제빵왕 김탁구>는 두 명의 남자 주인공이 남편은 아내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아내는 남편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얻은 아이로 등장하여 가정 해체의 막장을 보여준다. <결혼해 주세요>는 남편의 외도에 자아를 찾아 나서는 주부의 이야기를 그리는



데, 그 대상이 돈 많고 잘 생긴 연하남이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분홍립스틱>(2010)은 전처가 남편과 불륜녀에게 복수하는 소재이며, <인생은 아름다워>(2010)는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여 동성애 확대를 우려하는 여러 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욕망의 불꽃>은 등장인물들이 성공과 욕망을 위해 살인, 폭행, 낙태, 강간, 협박, 불륜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상황이 여과없이 그려졌다. 최근 체벌금지가 정치적인 논란이 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청소년드라마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정글피쉬 2> 역시 선정적 소재와 장면 등이 가족 단위 시청을 불편하게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몇몇 드라마에서 얼마나 많은 삶의 부정적인 면이 전면 배치되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시청자들은 이제 웬만한 자극에는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가 보다. 그 상태는 거의 중독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드라마는 그만큼 상처입은 현대인들의 내적 트라우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인정해줄 수 있지만, 반면 상처입은 영혼은 그만큼 상황을 어찌 하지 못해 발버둥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만 현실과 가상의 혼란스런 몽환적 시뮬라시옹에서 탈출해야 할 때이다. 인간은 하루 빨리 이 인간적 드라마의 굴레를 떨쳐버리고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신적 드라마로 회귀해야 한다.

신적 드라마에 접맥되어야

사람이 울고 웃는 모습은 휴머니즘의 기본이다. 드라마는 이 휴머니즘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감정과 상태가 사람이 삶을 지탱할 수 있을 때 휴머니즘도 빛을 발하게 된다. 지금의 상황은 그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쳐 있다고 본다. 예고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스스로 밧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이다. 드라마들이 왜 점점 막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가. 이는 분명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 10)를 증거하고 있다. 막장드라마를 생산하는 작가, 연출가, 배우, 기타 방송 관계자들이나 이를 소비하고 있는 시청자들이나 모두 세속적 상상력에 마취되어 있는 것이다.

생산하는 자들은 단지 이미지만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려하고, 소비하는 자들은 그 이미지 속에 자신을 숨겨버리려는 도피행각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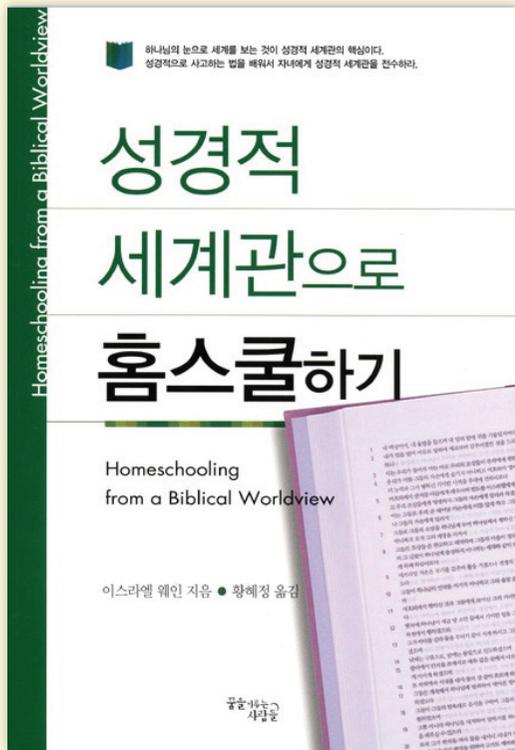
우리 시대의 미디어를 꽉 채우고 있는 드라마, 월요일에서 주말까지 빠지지 않고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이 극예술이 파스한 인간미로 가득차기를 바란다. 드라마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단지 이미지와 감정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았으면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끝으로 이 시대의 드라마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영감을 받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새로워지는 계기를 맞이하기를 기대해 본다.

글. 추태회(인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성경적 세계관으로 홈스쿨 하기

한국 사회의 교육열풍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만큼 강렬하다. 그러나, 교육이란 주제를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곳곳에 산재한 교육현실의 문제와 아픔에 고통스러워한다. 여기 기독교 교육을 위한 새로운 통찰을 주는 책을 소개한다.



한국 사회의 교육열풍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강렬하다. 그러나, 교육이란 주제를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곳곳에 산재한 교육현실의 문제와 아픔에 고통스러워한다. 여기 기독교 교육을 위한 새로운 통찰을 주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홈스쿨 하기>라는 책을 소개한다. 이 주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호감을 주지는 못한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홈스쿨이라는 방향도 일반인들에게 낯설고 힘들지만,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녀를 가정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더욱 올라가기 힘든 목표처럼 보인다. 이 책을 읽으면, 오늘의 교육의 험난한 산을 성경적 가치로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지혜와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 저자는 실제로 홈스쿨로 25년동안 양육되었으며, 현재 홈스쿨 사역을 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그를 통해 홈스쿨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 왜 오늘날 홈스쿨링의 방법이 필요한 시대를 만났는지, 부모로서 자녀를 제자화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저자는 1장에서 홈스쿨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다. 홈스쿨을 시작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제자화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다.

가정은 자녀를 제자화 하는 최고의 환경이다. 부모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녀에게 알게하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유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2장에서 저자는 성경적 가치관을 교육해야 하는 중요성을 말한다. 모든 교육은 세계관이 있다. 모든 사람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며 행동한다. 부모는 오늘날 세속적, 인본적 가치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 가치관을 이해해야 하며, 특히 현실과 교육 저변에 깔려 있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을 알고,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3장에서 그는 현실 세상의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사상의 폭격 속에서 자녀들이 성경적으로 사고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12가지 지침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이 원리는 논리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정하기에 자녀들에게 성경적 사고의 힘을 길러주는 기초가 된다.

4장은 실제적인 홈스쿨의 방법이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이 장에서 역사, 과학, 수학, 언어, 철학, 문학, 미술, 음악의 과목을 언급하면서, 각 과목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인지, 기독교 세계관과 어떤 논쟁점이 있는지를 살핀다. 그 뿐 아니라, 각 과목의 성경적 세계관의 목적은 무엇인지,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치면, 성경적으로 사고하면서 배울 수 있는지의 구체적인 추천도서와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오늘날의 교육에 스며들어 있는 각종 사상의 영향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의 모든 영역과 학문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게 한다.

5장에서 8장까지는 오늘날 홈스쿨 교육이 더욱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한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제자화하라는 권리와 특권을 주셨다.(7장) 그러나, 세상의 세속적 문화의 영향(5장)과 다문화주의 속에 숨겨진 절대적 진리의 부정(6장), 그리고 공립학교의 부정적인 사회화(8장)의 도전이 이 부모의 특권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부모는 이 절망의 문화 속에서 세속적 욕망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자녀에게 길러 줄 뿐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이용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자라게 해야 한다. 부모는 오늘날 팽배해 있는 다문화주의의 사고-모든 인종은 본래 평등하며 우월한 가치 체계는 없고, 모든 문화가 동등하다는 주장-속에 숨겨진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잘못을 이해하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또한 부모는 공립학교의 또래 집단을 통한 부정적인 사회화를 간파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인 사회화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9장은 홈스쿨은 단순히 한 가정의 유익만이 아니라, 가정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잃은 자와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할





용해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구체적인 사역의 다양한 실재를 소개한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에 가정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보여주는 신선함이 있다.

나는 부모로서 자녀를 제자화하는 소망을 가지고 2003년부터 홈스쿨을 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하지 않으면 세상이 자녀를 제자화한다’는 절박함으로 시작했다. 돌아보면, 홈스쿨은 우리 가정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가장 큰 변화는 부모의 변화이다. 홈스쿨을 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부모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며,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간다. 이 부모의 변화는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는 놀라운 유익을 얻었다.

홈스쿨을 시작할 초창기 특별한 홈스쿨 안내서가 없던 그 시절에 비하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녀를 홈스쿨링하기>라는 책은 홈스쿨의 목적과 방향, 비전을 확인 할 수 있는 훌륭한 안내서이다. 자녀를 제자화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다.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 명령 앞에 고민해야 한다. 나는 감히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 각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기를 부탁한다. 저자가 서문에서 알려준 말이 나의 마음에 울린다. “홈스쿨은 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복음이 답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세대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홈스쿨만큼 좋은 도구는 없다”고 한다. 그렇다! 어떤 교육을 선택하느냐는 부모의 지혜와 분별에 달려 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배움의 장은 가정이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제자화하라고 불러주신 최고의 교사는 부모이다.

이 책을 통해 부모로서 다음세대를 제자화하는 거룩한 사명에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는 부모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부모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사고하며 살아가는 다음세대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글. 강성한 목사, 주님의 은혜교회



Christian
Thinking
Center

청소년 생각캠프

일시 : 2011년 1월 27일(목)~ 29일(토)

대상 : 중고등학생(등록순 50명)

강사 : 유경상(CTC 대표, 샘물학교 교재개발 연구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소년세계관교재개발 위원)

주최 : CTC(크리스천 싱킹 센터)

후원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대안교육센터

회비 : 200,000원(숙식, 교재, 보험 포함), 12월 31일까지 등록시 2만원 할인

계좌번호 : 우리은행 375-184526-02-001(유경상)

장소 : 청평채플(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359-4, T : 010-9925-1121)

문의 : 010-2792-5691(안성희 팀장), 010-9326-8439(CTC 대표, 유경상), ctc2007@daum.net

지금 한국 교회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캠프입니까?

- 게임과 컴퓨터 대신에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청소년
- 교회만 다니는 청소년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픈 청소년
- 세상 문화의 유혹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고 싶은 청소년
-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픈 청소년

어떤 캠프입니까?

- 강의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파워포인트, 이야기, 사진, 동영상, 토론 중심의 창의적 학습
- 기독교세계관 툴(tool)을 통해 학생 스스로 참여하여 생각을 정리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 담배, 술, 게임, 친구 등 삶과 문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룸으로써 현장 문제를 접근하는 프로그램
-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신의 사명 및 비전문 작성
-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을 실천하는 라이프 플랜 세우기



* 학부모님들을 위한 특별순서: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독교세계관 가이드를 제공하는 학부모 세미나(1월 27일, 오후 3-5시)가 있습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4기 시사문화QT

레위기서의 부활을 꿈꾸다

사람은 육체(肉體)를 가지고 있다. 먹어야만 삶을 지속할 수 있다. 먹기 위해 산다는 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하는 것을 밥벌이 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그냥 생길 리 만무하다. 농자는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기에 매우 중요하단 이야기이다. 물론 육체적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도 많다. 하지만 먹는 것을 끊어 버린다면 사람은 살 수 없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

음식은 우리에게 생명줄이자 시대를 반영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는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배꼽아 본 적 없이 배가 터질 듯 먹는 많은 아이들이 이 시대의 풍요를 대변한다. 빠르고 간편한 인스턴트 음식 또한 빨리빨리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현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소나무 껍질을 삶거나 들풀을 뜯어 죽을 쑤어먹던 시대는 오랜 옛날이야기이나 나올법한 동화와 같다. 만들기 어렵고 까다로운 음식은 부역을 벗어나 대량 생산 형태로 공장화 되어간다. 시대가 변화해 가듯 우리의 식문화도 변화했고 그 과정에서 음식문화가 변질되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배를 곯아 죽었다면 요즘은 과식과 나쁜 식습관으로 병들어 죽어간다. 수



많은 종류의 성인병들은 성인들이 아닌 아이들에게서도 쉽게 발견되고 있다. 그 이유를 급변하는 시대를 따라가는 식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나쁜 음식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잘 알기에 쉽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상하리만큼 이 고질적인 문제는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 먹는 것을 어떠한 법으로 규정하여 사람들에게 지키게 할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에게 먹는 법에 대하여 조언을 시도하기만 해도 마치 인권을 침해한다든가 사생활에 간섭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먹는 것’을 우리만의 고유한 자유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마음대로 먹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레위기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을 구분하셨으며, 레위기 7장과 17장에서는 동물의 피와 기름기는 먹어서는 안 될 것으로 분류하고 계시다. 왜일까? 단순한 의식적 문제였던 것일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말씀을 간과하고 지나친다. “시대가 지났으니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혹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우리에게 이롭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이다.” 라며 우리는 구별과 절제 없이 먹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이라 욕하는 유대인은 이상하게도 아직도 그 낡고 낡은 법을 따라 먹고 있다. 안식교인들도 마찬가지이다(물론 나는 유대교와 안식교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다시 앞의 문제로 돌아가 생각해 보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먹는 법을 가르치려 하셨을까? 일일이 하나하나 자세하고 섬세하게 가르쳐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고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을 약속하셨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한 자손을 갖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수많은 임신 후 검사들은 아이가 건강한 아이인지 혹은 아닌지를 검사하기 위함이며 아이를 낳은 후에도 그 열심은 계속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너무나도 오염된 환경이 가져오는 결과를 현대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건강한 후손을 약속하고 계시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이 강대한 민족으로 자라난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건강상태 또한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

우리는 ‘먹는 것’을 우리만의 고유한 자유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마음대로 먹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음식문화에 있어서 레위기서의 부활을 꿈꿔야 한다. 위험천만한 음식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배워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다. 로마제국은 납중독 때문에 멸망했다는 말이 있다. 로마는 당시 은을 대량생산하고 있었고 은 생산과정의 부산물 납은 은보다 300배 이상 많이 생산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납을 식기, 수도관 등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로 거의 모든 시민이 납중독으로 죽어갔고 기형아 출산으로 왕 통은 이어질 수 없었으며 건강한 군인들을 기대할 수 없었다. 결국 로마는 멸망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번성은 개개인의 건강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셨다. 그러했기에 유대 민족에게 음식법을 철저히 지키길 것을 요구하셨다. 음식법을 잘 지킨 결과 유대민족은 번성하게 됐다.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면,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였으며 이집트 땅에 가득 퍼졌음은 물론(7절) 유대민족의 여인들은 매우 건강하였다.(19절) 같은 땅에서 살고, 그곳에서 난 농작물을 먹고 산 이집트인과 유대인의 극명한 차이점은 하나님의 음식법에 있었다. 다니엘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음식법의 활약을 발견할 수 있다. 고기를 마음껏 먹은 이방의 청년들과 하나님의 음식법을 철저히 따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차이는 매우 놀라울 정도이다.



현대에 와서 성경이 매우 과학적이라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음식법은 ‘구시대의 유물’ 같은 취급을 받으며 무시되고 있다. 과연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올바른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할 우리는 먹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이다. 노아 방주사건 이후로 고기가 허락되었듯이 과학의 발전으로 먹어도 될 음식이 더 많이 허용된다고 믿는다. 허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음식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시대가 올바르게 못향 -물질주의적-으로 나아갈수록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점차 늘어만 가고 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음식문화에 있어서 레위기서의 부활을 꿈꿔야 한다. 위험천만한 음식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배워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순종하자, 우리가 먹는 것의 문제에서도.

글. 이지현(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4기)



여교사 남중생 성관계 사건에 대한 입장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2010년 10월 우리를 충격으로 몰고 간 사건이 있었다. 바로 30대 여교사와 중학생 제자의 성관계 사건이다. 그런데 그 사건의 최고 절정은 바로 그 두 사람이 진짜로 사랑했을 뿐이라고 밝혀진 점이다. 보통의 사건은 교사의 성폭행이거나, 그 어떤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그저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진 것이 이 사건의 큰 정점인 것이다. 그러니 법적으로도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국내 현행법상으로는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비난까지 피할 수는 없었다. 분노한 많은 네티즌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여교사가 처벌되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이다. 워낙 충격적인 소식이 많은 세상인지라, 이 사건 역시 그 어떤 반성을 해보기도 전에 어느새 우리에게 잊혀 지나갔다. 뉴스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반성이라는 것은 낯설기만 한 것일까? 하지만 지나간 문제를 되짚어보는 일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사실 이 사건을 두고 사회의 반응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비난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낭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없지 않다. 20살 차이가 나는 여교사와 남학생의 사랑을 마치 한 편의 영화에 나오는 사랑처럼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금기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그 사랑을 오히려 숭고하게 여기고, 부러워한다. 실제로 이 사건은 우리가 영화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스토리 중의 하나이다. 영화 속에서 신분과 나이, 그리고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은 매우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그려지기 마련이다. 오히려 영화는 그 문제의 사랑에 손가락질 하는 이들을 악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감독의 시선은 곧 관객의 시선으로 내면화된다. 어느새 우리는 법과 질서보다 낭만을 소중히 여기는 낭만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충격적인 사건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마도 미디어의 영향이 적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모든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고 해체시킨다.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보다 우리의 감정에 충실할 것을 더 요구한다. 물론 그 동안 한국 사회가 너무 억압된 사회였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감정이 좀 더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함도 깨닫는다. 하지만 그것이 도를 지나쳐 사회의 질서에 위협을 가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나 인간의 성적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거기에 어떤 경계선 없이 자유만을 주장한다면, 세상은 온통 난장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아마도 파멸되고 말 것이다. 모든 질서를 부정하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인생의 끝을 비참하게 맞이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임을 읽을 수 있다. 그 분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또한 자신의 백성이 따라야 할 질서와 규율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족쇄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참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법과 규율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참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글. 박명호(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4기)

한기철/기학연 추계 공동 학술발표회

10월 30일(토) 오후3시 숭실대학교 벤처관 511호에서 한국기독교철학회와 기독교학문연구회의 공동주최로 추계 학술발표회가 있었습니다. '21세기 기독교철학과 세계관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산더 호리훈, 헨드릭 헤르세마 네덜란드 자유대학교 명예교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공동 학술발표회에는 국민일보, 목회와 신학에서 취재를 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제 한, 중 기독교학자 포럼 참가 중국학자들 사무국 방문

11월 5일 국제 한중기독교학자 포럼에 참석했던 중국 기독교학자들이 기독교학문 연구기관 탐방을 위하여 사무국에 방문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술적으로만 접근하였던 중국의 기독교학문 연구가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신앙으로의 접근하고자 중국 내에 기독교 세계관을 펼칠 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였습니다.



미안마 홀리라이튼 국제대학과 MOU 체결

11월 12일 이촌동 사무국에서 김승욱 실행위원장, 김승태 대외협력위원장과 김한석 선교사(미안마 홀리라이튼 대학 총장)가 만나 상호 업무협조와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추모예식 모범안 공청회

11월 22일(월) 오후2시~5시까지 서울영동교회에서 신학자, 목회자들을 모시고 연구프로젝트인 추모예식모범안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제27회 기독교학문학회 개최

1월 27일(토) 명지대학교 방목종합학술관 국제회의실에서 제27회 기독교학문학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임성민 교수(장신대), 한정화 교수(한양대), 신현호 교수(백석대)가 주제 발제자로 강연을 하였으며 교육, 경제/경영, 문화/예술, 윤리/역사, 사회복지/상담, 철학/세계관 등 6개 분과 30여 편의 연구논문 발표 및 대학원생 논문발표 시간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성해강재단이 마련한 ‘기독교학술논문상’ 시상식도 함께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이재희 교수(경원대)와 백종국 교수(경상대)가 각각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교회의 역할’, ‘한국 기독교 정치학자의 사회적 책임’이란 제목으로 저술된 연구논문으로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비 및 후원(2010.9~10월)

개인회비_단위(만원)

강대훈(4) 강상우(2) 강은정(1) 구성덕(1) 구재형(0.6) 구재환(1) 구춘원(15) 권명중(1) 권민규(2) 길원평(1) 김경식(1) 김경희(3) 김기웅(1) 김기현(1) 김남국(4) 김남진(1) 김대용(1) 김동원(6) 김미정(1) 김방룡(6) 김범래(0.5) 김병국(1) 김상범(6) 김상욱(0.5) 김상욱(0.5) 김선화(3) 김성권(0.6) 김성락(10) 김성상(2) 김성원(1) 김세령(2) 김세완(2) 김승태(20) 김영애(2) 김영완(2) 김영화(2) 김옥태(4) 김용식(4) 김원수(20) 김은하(1) 김은혜(2) 김일환(1) 김정명(1) 김정심(1) 김정일(2) 김정준(1) 김정호(2) 김중규(1.5) 김중락(6) 김찬호(0.6) 김창현(0.6) 김철수(1) 김태양(0.6) 김태운(1) 김해경(2) 김현승(1) 김혜숙(0.6) 김혜창(1) 김홍섭(2) 남상수(1) 남서희(1) 노용환(4) 류화원(1) 마민호(1) 명윤수(4) 박경준(0.6) 박기연(1) 박문식(3) 박상은(20) 박상진(6) 박승룡(1) 박시운(2) 박신현(6) 박준모(1) 박창우(2) 박찬규(1) 박한(4) 박한배(2) 박해일(1) 배기선(1) 배도환(1) 배무련(1) 배은경(4) 변우진(4) 사공성대(1) 서성록(2) 소애자(5) 소중화(1) 손봉호(10) 손영일(1) 손중숙(3) 송시섭(1) 송인규(10) 송정은(1) 신기혁(1) 신현주(1) 신현호(4) 심정하(1) 안용준(3) 양성만(2) 양성일(2) 양숙(1) 양영태(1) 엄용환(10) 오범석(0.3) 오의석(6) 오혜정(2) 우병훈(6) 우시정(4) 우원주(0.5) 원호영(3) 유건호(2) 유영준(2) 유지황(2) 유창은(1) 유충열(1) 유해무(2) 윤경선(0.6) 윤완철(20) 윤종선(1) 이경미(1) 이근배(1) 이근호(6) 이길수(1) 이길형(2) 이노운(1) 이대환(4) 이대회(6) 이명수(2) 이명희(4) 이상웅(0) 이상훈(3) 이성수(2) 이수연(2) 이수정(0.6) 이승구(5) 이시영(2) 이영홍(1.5) 이원배(1) 이윤석(1) 이윤희(1) 이은미(0.5) 이은실(6) 이인수(1) 이인주(1) 이종국(2) 이한기(1) 이향숙(1) 이현정(4) 임고운(1.2) 임선제(1) 임윤희(1) 임일택(2) 임재영(1) 임지연(2) 임춘택(1) 임형준(1) 장남기(1) 장병두(0.5) 장수영(6) 장현일(1) 전광식(20) 전성구(2) 전정진(1) 전중화(0.5) 전충국(1) 전태수(2) 정동섭(6) 정범채(1) 정은애(6) 정현주(2) 정희영(10) 조무성(3) 조성진(0.6) 조용현(2) 조은아(1) 조인진(1) 조창근(1) 조현철(2) 조혜경(1) 주성식(1) 주성철(2) 채기현(10) 최광수(1) 최동원(3) 최연숙(1) 최용준(4) 최한빈(1) 최현두(2) 최현일(10) 한윤식(10) 한인관(0.6) 한혜실(2) 허재일(1) 허찬영(2) 현은자(3) 홍말순(0) 홍미경(2) 홍성민(1) 홍승기(1) 황나란(1) 황의서(1) 황정진(6) 황정현(0.6) 황혜정(2) 김승욱(100) 김의원(20) 박문식(3) 손봉호(5) 양승훈(30)

후원기관_단위(만원)

100주년기념교회(60) 개봉교회(5) 국군중앙교회(40) 군산성광교회(10) 남서울교회(20) 남서울은혜교회(20) 다니엘새시대교회(20) 두레교회(6) 명성교회(20) 사랑의교회(140) 산정현교회(20) 삼일교회(10) 새로나교회(20) 새언약교회(10) 샘물교회(20) 성덕교회(20) 성덕중앙교회(10) 수영로교회(40) 신석교회(20) 언약교회(10) 온천제일교회(20) 은혜로교회(20) 자운교회(20) 중앙대학안성교회(10) 참빛교회(20) 한국성결교회(10) 호산나교회(20) (주)한국잡지(4) 감신대(5)

회원가입안내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소는 2009년 5월에 통합하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거듭났습니다. 기독교적 학문연구와 기독교세계관운동에 뜻이 있으신 모든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일정의 회비 납부자)에게 드리는 혜택

1.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 <Worldview>과 학술지<신앙과 학문>또는 <통학연구>를 보내드립니다.
2. 석사이상 회원분들은 <기독교학문연구회>회원으로 자동등록됩니다.
3. 홈페이지를 통해 기독교세계관에 관한 각종 학회 및 세미나 발표논문과 칼럼,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4. 기독교세계관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실수 있습니다.
5. 년1회 CUP출판사의 신간을 받아보실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6. 학문연구에 뜻이 있으신분은 학술지 <신앙과 학문>에 투고할 수 있습니다.
7. 회비(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회비_1 구좌 : 5,000원

일반회원 : 2구좌(1만원) 이상

학생회원 : 1구좌(5천원) 이상

임원 : 6구좌 (3만원) 이상

이사 : 20구좌(10만원) 이상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정회원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CMS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FAX(0303-0272-4967)로 보내주시면 사무국에서 처리하여 드립니다.

CMS 출금이체 신청서

담당	책임자

앞

신 청 인 정 보			
상 호 (성 명)		납 부 자 번 호 (고 객 번 호)	
전 화 번 호		출 금 일 자	매월 /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휴 대 전 화			미결제시 출금일 이후 재청구함.
이 메 일			

계 좌 정 보 (<input type="checkbox"/>개인 / <input type="checkbox"/>법인통장)			
은 행 명	은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주민등록번호	<small>(법인은 사업자번호 기재)</small>
월납입액	금	원 (₩)

【 CMS 출금이체 약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 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6.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기로 하여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기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
<p>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p>

위 CMS 출금이체 약관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따라 위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201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또는 서명

※ 신청자 유의사항 ※

-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지신청을 하고 신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제1회 DEW 기독교 세계관 캠프

강/의/주/제

기독교 세계관 1, 2 신국원 교수
학문과 신앙 최용준 교수
기독교 세계관과 과학 그리고 창조과학 제양규 교수
경제 김승욱 교수
정치와 남북한 이국운 교수
문화 강진구 교수
국제 방청록 교수



신국원 교수
(현) 홍신대 신학과 교수
저서: 《나고데모의 안경 (함께 품어 온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수)



최용준 교수
(현)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IEW) 교수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철학)
유럽일일이사, 유럽개혁신학연구소 운영위원
별기에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제양규 교수
(현) 한동대 기계 제어 공학부 교수
(현) 한동대 교무처장
공학박사



김승욱 교수
(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사)기독교 세계관 학술동역회 공동회장 및 실행위원장
저서: 《공동체 자유주의: 이념과 정책 (공저)》 (2008) 외 다수



이국운 교수
(현) 한동대 국제 법률 대학원 교수
법학 박사
참여연대 사법 감시센터 실행위원



강진구 교수
(현) 고신대 특수학교 학부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실행위원



방청록 교수
(현)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정치학 박사



이남식 총장
(현) 전주대 총장
(현) 국가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위원

- 일 정** 2011년 1월 10일(월) - 1월 14일(금)
- 장 소** 한동대학교
- 참가비** 8만원 (3만원 지원, 실참가비 5만원 [4박 5일 숙박비])
- 신청방법**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 apark@handong.edu로 신청
- 문 의** 한동대학교 박애린 연구원 (054)260-1876

cyworld 클럽 <http://club.cyworld.com/dew2011>

DEW 기독교세계관 캠프 검색